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11

현상설계경기 / 115

해외잡지동향 / 12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0

신입회원 / 132

게시판 / 133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98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안) 승인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구랍 9일(제17회)과 29일(제18회)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17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98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승인의 건
 - 각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19개 위원회(분과위 포함) 가운데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해 14개로 축소하고 전체 위원수도 줄여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한 원안을 승인.
- 단, 담당이사 및 위원선임, 업무분장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내용	비 고
폐지	- 연금정산위원회 - WTO대책위원회	- 연금정산 완료 - 각 위원회 공통 고려사항
통합	-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회관재건립추진위원회 → 특별사업추진위원회 - 홍보위원회+편찬위원회 → 홍보·편찬위원회	- 유사 위원회 통폐합

- 제2호의안 : 직제/사무분장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의 직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와 시·도건축사회간의 직급차 등을 폐지토록 한 원안을 승인.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개정 내용
제13조 (직제 및 직급)	- 직제:시·도 건축사회의 직제가 회원수를 기준으로 구분 → 폐지 - 직급:본협회의 시·도건축사회간 직급차등 → 폐지

- 제3호의안 : 강원건축사회 직원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현행 1급을 1명, 3급 1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10급 1명, 총 10명)을 1급을 1명, 2급을 1명, 3급을 1명, 5급을 1명, 6급 3명, 6급을 3명으로 조정)
- 제4호의안 :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강사섭외 및 업무활성화를 위해 회원과 대외인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동일하게 지급 / 회원 5만원, 대외인사 10만원 → 회원 10만원, 대외인사 10만원)
- 제5호의안 : 임의적립금 차입기간 연장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11회 이사회(97. 7. 29)에서 일시 차입한

378,400,000원 중 미 반환 금 178,400,000원에 대하여 연회비 성격의 인력관리비 납부실적이 부진하고, 연내 전액징수, 세입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98년도에 반환토록 함)

- 제6호의안 : 건축연구소 연구원 채용 승인의 건
 - 책임연구원 1인과 연구원 1인을 채용키로 함. 단,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키로 함
- 제7호의안 : 인사위원회 구성(안) 승인의 건
 - 회장에 위임키로 함
- 제8호의안 : 사무기구 개편(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단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회장과 김무언부회장에 위임키로 함.
 - 협회 업무영역 확대 및 시장개방 등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무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해 기업형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현 1실1처4부12과 기구를 본부장제를 도입해 2본부(기획운영·행정관리), 4실(기획조정·회원지원·경력관리·정보관리), 1연구소(건축) 체제로 전환)
- 제9호의안 :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 97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로 아래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대로 징계함

징계대상자	직 위	징계결정사항
조병은	건축사시험처장·기획실장	직위해제
윤동식	기획부장	직위해제
권오성	총무부장	감봉 2개월
김용겸	건축부장	감봉 1개월
양원석	사업부장	감봉 1개월
한강일	회원부장(직무대리)	경고
고한상	총무부 경리과 대리	경고
김진배	서울건축사회 총무부 대리	견책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발급수수료 조정(안)>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조 정 금 액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500원/부	3,000원/부	↓500원/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0,000원/건 (10명 초과시부터 1인당 1,000원 추가)	7,000원/부 (10명 초과시부터 1인당 500원 추가: 상한금액 30만원)	↓3,000원/부 (초과시 ↓500원 및 상한금액 신설)
참여기술자(P.P, P.Q) 확인서 발급	3,500원/인	3,000원/인	↓500원/부
건설기술경력증 갱신 또는 재발급	8,000원/건	(좌동)	(변동없음)

■ 제18회

< 부의사항 >

- 제1호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발급수수료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함(상단 표 참조)
- 제2호의안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 승인의 건
 - IMF 경제위기에 따른 협회의 입장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재협의키로 함
- 제3호의안 : 건축연구소 연구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건축연구소 연구계획(안)>

연구과제	연구기간
건축법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규모 건축물의 활성화를 중심으로(1) - 건축사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연구(1)	97년 12월~ 98년 2월 (2.5개월)
- OECD가입 29개국을 중심으로 -	"

- 제4호의안 : 98년도 직원중식비 지급 유보의 건
 - 98년도 직원중식비 지급을 3월 임시 총회시까지 유보키로 함.

98년도 시무식 거행

본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탁협동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3일(토) 오전 10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98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탁협동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합동시무식에서 김영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IMF한파로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오를 새롭게 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결속해 새로운 의지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세훈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만큼 어떤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신탁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시무식후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시무식 광경

서울 지역건축사회장단 「건축사 결의문」 채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개 실천강령 결의

서울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장단은 구랍 1일 IMF구제금융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근검절약을 행동지침으로 한 「건축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중에는 국산품 애용하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회원 가정에 사장 때 있는 외화모으기, 회원자녀의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등 외화반출행위 자제, 송년회 등 연말연시 소비성 행사 지양 등 5가지의 구체적인 실천강령이 들어있다. 한편 서울 지역회장단은 이 결의문을 회원들에게도 홍보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



협회 임직원, 경제살리기 동참결의

98년도 봉급 인상분 반납 및
근검절약 생활화 다짐

은 국민이 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협회 임직원들도 이에 동참하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 12월 10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열

린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최근 IMF한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도건축사회 직원들의 이같은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도건축사회별로 전 임직원의 동참의 뜻을 밝히는 서명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본부와 16개 시·도건축사회 임직원들은 현 우리경제가 처한 심각한 어려움으로 회원사들의 경영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98년도 봉급 인상분 3%를 반납하기로 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내실 있는 협회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결의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본부의 경우, 사무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직원 모두가 점심시간 등 근무시간 외의 불필요한 전등 및 전열기구 사용을 지양하고 사무용품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업무목적외의 불필요한 전화사용 금지 등 근검절약운동을 생활화하기로 하였다.

김영수 회장, 러시아국립산업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받아

국제 건축교류 증진과
민간외교 활동 공로로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이 구랍 22일 모스크바 러시아국립산업대학으로부터 명예 건축공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학위수여는 김영수 회장이 한국 건축계를 대표해 그간 아시아 각국과의 교

류를 통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고, 이는 또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국립산업대학이 모스크바 탄생 850주년을 기념해 국제적으로 건축·건설분야 유력인사와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김회장은 이 대학의 명예교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러 양국간 활발한 건축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러시아 교육부 인사 및 학계 중진들과 많은 교민들이 함께 자리해 김회장의 학위수여를 축하했다.

이세훈 서울건축사회장, 대통령표창 수상

시민건축대학을 통해
'에너지절약 건축' 홍보 공로



이세훈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이 구랍 4일 한국전력강당에서 열린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통상산업부가 후원한 이날 포상수여식에서 이세훈 회장은 그간 시민건축대학을 통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을 적극 홍보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전북건축사회관 개관

연면적 1천5백여평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

전북건축사회(회장 이상돈)는 구랍 12일 「전북건축사회관」을 신축하고 개관기념식을 가졌다. 전북건축사회의 새보금자리가 된 이 건물은 연면적 1천5백7평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업무용사무실을 비롯해 전시실과 대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건물 안에는 대한건축학회 전북지부 사무실이 함께 입주해 있어 지역건축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회관개관을 기념해 구랍 5일부터 14일까지 「전북건축사회원작품전 및 학생작품 공모전」 전시회를 가졌다.

우리협회,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

우리 협회가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구랍 9일 우리 협회와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모두 11개 기관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은 일부 교육프로그램 보완후 올해중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전문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에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리협회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측량협

회,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경영연구소,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이다.

이에따라 교육대상자중 최초 입사일이 95년 8월 5일 이전인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2000년 8월 4일까지 최초교육인 2주간의 종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95년 8월 5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들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는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말까지 최초교육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교육후 5년 이내에 재교육을, 그 이후 최초교육 이수자는 3년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내년도 이후에 종합교육을 받는 건설기술자는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

심사결과 발표

최우수상에 흥간건축
김희곤 작 「KJ빌딩」

건축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발전과 미관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노진달)와 울산광역시가 공동개최한 제2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흥간건축 김희곤 회원이 설계한 「KJ빌딩」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 공모전의 우수상은 「김씨주택」(구성건축사사무소 이종대 설계), 「동남빌딩」(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 윤승문 설계) 두 작품에 돌아갔으며, 「백씨주택」(건축사사무소 상징 김동관 설계), 「우진비치빌라」(수영종합건축 박재현 설계), 「태화종합법률사무소」(우성건축 최광식 설계) 등 세 작품이佳作에 뽑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KJ빌딩」은 연면적 994.95㎡,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주택)로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위치해 있다.

이번 공모전은 95년~97년 기간중 완공된 울산광역시 소재 완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33개 응모작(단독주택 9점, 공동주택 6점, 일반건축물 3점) 가운데 건축계획 및 기능, 건축물외장, 환경시설(조경) 등을 종합 평가, 이중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각 수상작품의 설계자와 건축주에게는 상금과 상패(건물부착용 동판)가 수여되었다.

'97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집 발간

수상작품 사진 및 도면,
심사평 등 수록

'97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작품집이 발간됐다.

비매품으로 발간된 이 책자에는 지난해 우리 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을 수상한 「LG화학 대덕연구소」를 비롯해 계획건축물부문 금상 수상작 「空」 등 각 부문별 수상작품의 컬러사진과 작품설명 글, 건축(설계) 개요, 심사평 등이 143쪽에 걸쳐 수록돼 있다.

